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 장관,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을 찾아, 실노동시간 단축 진행 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0일(화)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주)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호 참여기업인 (주)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주)영진어패럴, (주)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 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 되고 있고, 『위라벨+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1 현장방문 개요

붙임2 (주)재담미디어 사업장 개요

붙임3 실노동시간 단축 이야기(주)재담미디어)

붙임4 장관 인사 말씀

붙임5 『위라벨+4.5 프로젝트』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박노완	(044-202-7618)
			주무관	최주환	(044-202-7530)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6. 2. 10.(화), 15:00~16:00
- 장소 : (주)재담미디어(서울 마포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정 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노사발전재단
 - (전문가)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 손연정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기 업) (주)재담미디어, (주)영진어패럴(부산, 제조), (주)DYE(전남, 기술서비스)
 - (사업주 단체) 부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
- 행사 내용 : 위라벨+4.5 프로젝트 참여 사례 발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현장 간담회
- 진행 일정(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1 기업 소개(캐릭터, 굿즈 등)	▪ (주)재담미디어 관계자
15:05 ~ 15:15 (10')	2 임직원 격려 및 웹툰 시연	▪ 장관
15:15 ~ 15:55 (40')	3 현장 간담회	
	(5') 인사 말씀	▪ 장관
	(10') 사례 발표	▪ (주)재담미디어 관계자
	(25')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참석자
15:55 ~ 16:00 (5')	4 기념 촬영 및 마무리	▪ 참석자

붙임 2

(주)재담미디어 사업장 개요

- ▲(업종) 정보통신업,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황남용
- ▲(근로자 수) 68명,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48

참여사유

장시간 근로 관행에 따른 이직 증가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 →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도입 배경) 내부 직원의 건강권 보호와 업무 효율성 향상

- ✓ 콘텐츠 제작 업무 성격상 원고 마감 시기에 수정 작업이 집중돼 **심야 연장근로**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직 증가**
→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결정

(추진 현황) '1일 7시간 노동' 노사 합의

- ✓ 내부 간담회를 통해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공론화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전 직원 실노동시간 단축에 합의** →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26.1.8.)
- ✓ 요일별 연재 일정이 상이하여 특정 요일 휴무 대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제(1일 7시간 노동)'**로 전환
- ✓ 작품 제작 과정에서 **동일·반복되는 업무는 표준화**하고, **집중 근무시간 운영** 및 **회의 줄이기**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 도모

(향후 계획)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화, 자동화 및 신규채용으로 업무공백 대응

-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주 35시간(1일 7시간 노동)'**을 **제도화**하여, 사업장 내 실노동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26.3월)
- ✓ 제작 과정별 **표준 작업시간**을 설정하고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예방**하며, **반복적 연장근로** 발생업무는 **과업 조정** 및 **신규 채용** 우선 추진
- ✓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그룹웨어(조직 내 협업 및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인력 채용도 병행**할 계획

(기대 효과) 직원 만족도 제고와 이직 감소로 기업 생산성·경쟁력 제고

- ✓ 조직 재설계와 프로세스 효율화로 노동시간은 줄어들면서 성과는 유지·향상되어,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 제고, 이직 감소** 등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
- ✓ '노사 참여·협력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고용브랜딩**으로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여 콘텐츠 시장에서 **기업 경쟁우위** 달성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업 및 지역 사업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동안 준비 과정에 대해 직접 듣고,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에 취임할 당시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할 길”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삶의 방식이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사 역시 이에 공감하여

작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부모와 청년 모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노사정이 뜻을 같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합의사항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이
첫 번째로 지난 1월 28일 발의되었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4.5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워라벨+4.5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일선 기업들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분들은
그간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궁금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기업 관계자분들의 애로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일선 기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노동시간 단축의 자발적 추진과 확산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주 4.5일제 도입·운영 사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유지+출근의무 면제 또는 유급휴무 부여 등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지원요건

- ① 노사 합의 ②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 ③ 출·퇴근 관리 ④ 임금 감소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도입수준 (전면·부분도입), **기업규모** (50인 이상·미만)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까지 지원(수준 차등),

① 생명·안전 업종,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지원한도

- ① **20인 이상~50인 미만**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 ②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